

대행 스님

일체를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큰스님 여러분,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대중 예, 아끼겠습니다.

큰스님 둘째, 불투도계이니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대중 예, 가지겠습니다.

큰스님 셋째, 불사음계이니 일체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시 마음을 청정케 하겠습니까?

대중 예, 하겠습니다.

큰스님 넷째, 불망어계이니 오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대중 예, 살겠습니다.

큰스님 다섯째 불음주계이니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않으며 자기와 남을 위해서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대중 예, 지키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여러분은 큰스님을 증사로 모시고 오계를 수지하였습니다. 세세생생 금강석 같은 신심으로 물러섬이 없는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일로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연비를 하겠습니다.

큰스님 수계에 대해서 법문을 하면 그것이 끝나고 바로 해야지.

사회자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큰스님 여러분이 이것을 말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모습을 벗고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을 때에 바로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십시오.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표가 있어야 들어가듯이 이것이 증명표가 됩니다. 우리가 헛되게 그냥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했지만 자동적으로 정수에 입력이 된다고 그랬죠. 살아나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일거수일투족 다 입력이 된다고요. 입력이 돼서 스스로서, 자기가 따귀를 때렸으면 자기가 따귀를 맞게끔 되는 원리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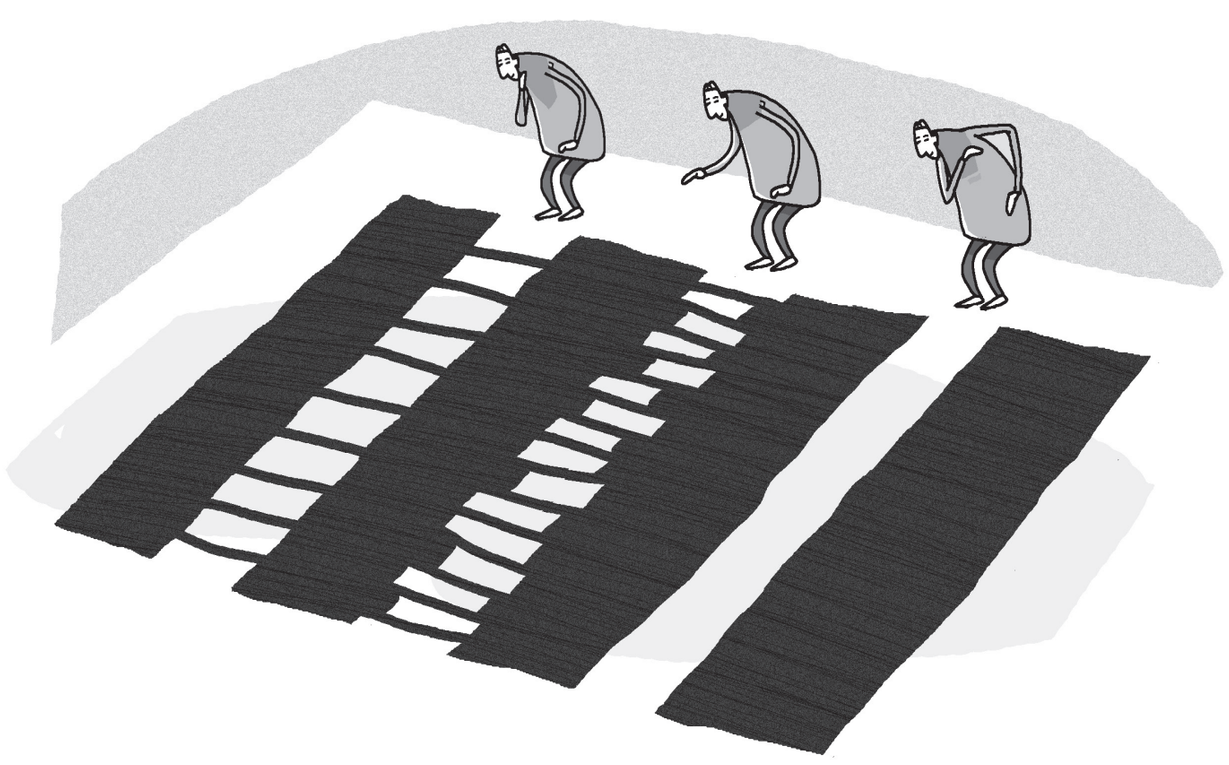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럼으로써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남을 둘로 보지 말라. 내 몸과 같이 아껴라.' 이런 말이 그냥 말로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똑같이, 그 삶의 문제가 다 같으니까요. 이 '탐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정결하지 못합니다. 한 생 살아나가기에 바쁜데 남의 것까지 탐을 낸다면 그 탐내는 것만큼 고가 옵니다. 그러니 탐내는 것만큼 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불사음계이니'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내 몸속에 있는 모두를 이끌고, 내 몸뚱이 하나를 이끌고 올바로 가기도 힘드는데, 내 부인을 놔두고도 남의 부인을 생각한다거나 이런다면 파장이 생기게 되고 자식들과 가정이 모두 화목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얘깁니다. 그냥 말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키게 되면 아주 선선하게 이 일체 우주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삼라만상 전체가 다 그 눈에,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마는 심안으로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마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과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도 이렇게 안으로 끼웠다 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갖다가, 있는 친척에서라도 갖다가 이쪽 없는 사람을 주는 데는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자비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람 살아나가는 데 융통성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젓국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벽을 치면 벽 친 대로 보거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 달이 저렇게 밝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이 손가락을 보고 말을 해요, 달을 보지 않고. 그와 같은 말이죠.

'불망어계이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을 또 낳습니다.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살이가 처참하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이것은 거짓말뿐 아니라 이간질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이 살려면 서로가 서로를 덮어 가면서 서로가 좋은 말로 이어 가면서, 친척이라 할지라도 친척을 끊어 놓는 게 아니라 이어 놓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모두가 좀 못된 말을 했더라도 좋은 말을 하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가서는 저쪽 얘기 좋게 말을 하고 이러면 서로 좋아지죠. 이것이 가정 화목이요 또는 사회 화목이란 말입니다.

'불음주계이니' 이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음식도 그렇고 좋은 선약도 그렇고 내 체질에 맞게 먹어야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약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 오장육부를 다 잘못되게 하고 나중에는 병이 들어서 가정까지 파괴를 시키고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부인 또는 남편,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가정을 그냥 파괴를 시키면서까지 음주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잔 두 잔 잡수는 거야 약주로 되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갔다, 지나치게 들어갔다 하면 망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술 먹어서 망주가 되는 반면에,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가정을 정말이지 지키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신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자식들까지도 분수를 지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는 반면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떠한 계율이든지 다 함이 없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계만 잘 지키신다면 죽어서 가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이 오계를 받고 진실히 잘 지키는 분에 한해서 얘깁니다. 진실히 지키면 지키는 대로 나라에서 표창받듯, 즉 말하자면 도리천에서 표창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에게는 벌써 자동적으로 그 마크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나무 때기에, 주장자죠. 주장자에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 마크가 달려 있을 때는 어딜 가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숭배를 받고요. 그 모든 보살들에게도 숭배를 받고요.

그러니 그렇게 숭배를 받을진대 나중에 생사천으로 들어갈 때는, 즉 말하자면 우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